

정대협: 조시현선생님 영역을 좀 부탁하였는데 조시현선생님이 영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영역해주세요.

조시현선생님: 필요한 영역부분을 정대협에 부탁해요. 지금 가동인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4.는 배경적인 설명이 많은데 제목을 그대로 해도 좋을지. 순서를 좀 조성하였어요, 그리고 문옥주할머니 내용에서 군위안소에 두 번 끌려간 경험이 있지만 버어마를 주목하려면 두 번째 경험을 쓰는 것이 좋을 듯. 아메리카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에서 작성한 심리전 심문보고 제2호 (1944.11.30) 자료 영어명 알고 있지요? 아마 국민기금자료집 제일 뒤에 있을 거예요.

문옥주

녹 미하라 인시군

{1942년 7월 만 18세 돈 많이 주는 식당에 간다는 말에 따라 나서 7월 10일 부산에서 군용 배를 탔는데 이때 6,7척이 함께 뗏고 수백명의 여성들과 함께 탔다. 이것은 아메리카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에서 작성한 심리전 심문보고 제2호 (1944.11.30)에 기술된 사실과 부합한다.

문옥주는 대만, 싱가포르를 거쳐 버어마 랑군에 도착. 트럭으로 만달레이로 갔는데 군인들이 위안소를 만들었다. 그곳 부대는 버어마 파견 타테(楯) 8400부대(제55사단) 사단사령부였다. 위안소 이름은 대구관이었다. 이외에도 마루사(치)부대 군인도 왔다. 아키아부-푸로무 랑군으로 옮겨져 위안부 생활을 하였다. 아키아부에선 투신자살을 시도. 나중에는 태국 아유타야로 옮겨져 간호원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방.

송신도

하상숙

한구 병참 위안소에 출두하여 14세를 18세로 나이를 올리면서까지 위안부로 삼은 것 버려져서 아직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상황 이와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확인한 경우만도 명에 달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써주면 좋을 것. 이것은 송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

학살

등충과 같이 일본군이 패배할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전원 전사하기 전에 군위안부 피해자들을 학살하였다. 또 중국전선, 오키나와와 팜, 팔라우, 트럭섬 등 남부 태평양 도서지역 전투지대에도 끌고 다니면서 성노예로 이용하고 죽이거나 혹은 연합군 폭격에 의해 죽도록 방치하였다.

노예화

{이미 군위안부의 처지가 노예 그 자체였지만 특히 위험한 전선으로까지 데리고 다닌 이동위안소의 위안부들 (특히 조선인위안부) 상태가 특히 심하였다. 민간인이었던 여성들이 성적 노예상태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군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본군 수뇌부들은 군위안부제도의 효용가치를 최대화 하기 위해 군위안부에 대한 군인과 군위안부가 된 여성에 대한 지침까지 내리고 있었다. 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오키나와의 제24군(사령관 아마미야 쿠츠미 Amamiya Kutsumi 雨宮 巽 중장) 산 제3475부대 내무규정 중의 위안소 규정(1944.12.20)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군인에겐 '일반적으로 영업부의 공유관념을 철저히 하고 점유 관념을 엄금할 것'이라고 하고 위안부에 대해서는 '업부는